

양파의 왕따 알기

안녕, 정화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진이
라고해.

침에 나는 정선이가 왕따를 당할 때 그냥 지켜만
보고 있는 널 보며 실망했어. 도와주지 않은 네가 잘못
했다고 생각했어. 나는 정선이와 친했잖아. 정선이는
너에게 배신감이 들었을 거야. 그런데 나도 너와 비슷
한 일을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어

작년에 우리반에 수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. 수현은
여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야. 나도 처음에는
고민했어. 그런데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세진이도 나
한테 수현이를 도와주자고 했어. 우리는 수현이 옆으로 가서 그 아이들
막아주었어. 그리고 곧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. 그 때 일 이후로
지금도 나, 세진, 수현이까지 셋이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.
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아깝도 뻘뻘해. 그러면서 정화 너가 대단
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거야.

정선이가 전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반 아이들이
희에게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. 미화가 심부름을
시키거나, 자기 준비물을 대신 챙기라고 하면 싫으면서도
그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지. 하지만 정화 너는
미화가 또 다른 친구를 따 시키자고 할 때 처음으로 미희
한테 "싫어"라는 말을 했어. 그 때 너는 참 용감하더라!
네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얻어 미희에게
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"싫어"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.